

술 취해 부부싸움중

엄마편들던 딸 살해

11일 오후 8시25분께 경기도 군
포시 산본1동 240-6 임병훈(43·노
동)씨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임

94.9.12

씨가 딸 선주(16·고3)양을 공기
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
다. 임씨의 부인 선영분(47)씨에
따르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
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
던 선주양이 엄마편을 들자 남편
이 갑자기 장롱 안에 있던 공기총
을 꺼내 선주양을 향해 1발 발사
한 뒤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다.

경찰은 달아난 임씨를 살인 혐
의로 수배했다. 군포/연합